

주제:

하느님의 강이 흐르면서 물줄기가 바뀌고 있다. 사람들은 인간의 의미에 대해서, 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게 되었다 - 달라진 세상을 이해하기 위하여: 평형이 깨어짐

구세주라는 말조차 필요하지 않았던 시대 -> 구세주가 필요한 시대

어디에서 세상의 구세주 사상이 일어났으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가?

왜?

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. 세상이 달라졌으므로.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세상.

어떻게?

*고대의 인간 이해: 사람들은 오직 신들의 형상을 지닌 진흙 - 영원한 죽음이 인간의 운명 구세주의 역할(Job description)이 없었다. - 이 세상은 길을 잃지도 않았고 구원할 필요도 없었다. 구원할 영혼이 없었다. 우리 하느님 최고!

족장들의 전사로서의 이스라엘 하느님이 이제는 그리스 철학의 모나드로 되어가다. 275

*인간의 구세주들로서의 통치자들 등장:

--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해지다. 사람들은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필요, 세상은 질서를 필요로 하다. 엉망진창 -> 질서: 군주들의 의무. 승리한 군주들: 그들 사회의 구세주

--이스라엘 주변의 냉혹한 외부 압력 - 단속적 평형으로 이스라엘이 변화할 수 밖에 없게 되어, 그리스도교 발생의 기회가 되다. 283

--이스라엘 추방의 재앙/국가회복의 희망 -> 본래의 선한 세상의 종말로 기울다- 조로아스터의 영향

*조로아스터교: 오염된 세상 -> 우주의 질서와 종말을 필요로 하다 286/288

불붙는 지옥: 조로아스터교와 그리스의 사상.

이스라엘의 언어가 우주론적 종말론의 성격을 띄게 되다 289

*그리스 철학: 피조물- 신의 본성에서 벗어나 있다. 신의 바깥에

그리스 과학- 옛 문명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과학적 발견-

신들에 대한 옛 개념을 폭발시키다. 291 우리 하느님 너무 초라해! 293

*영지주의: 세상은 신의 바깥에서 악마의 지배를 받는다.

조로아스터교와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이 혼합된 형태:

- 영혼은 물질적 세계에 속하지 않는 신령한 존재(그리스철학)
- 물질적 세계는 악마와 그의 속이고 거짓된 종교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(조로아스터교)

이렇게 혼합된 이원론 → 기독교 저변에 깔리다 293

선택받은 사람들: 이 세상의 실재가 무엇인가? 누가 다스리는가?를 아는 것-
하늘로부터 오는 그노시스=깨달음

진리(그노시스)로 인도해 줄 구세주를 하느님이 보낼 필요가 있다. 296

*유대인 메시아들과 구원자들

--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대인들은 천상의 구세주를 찾지 않았다.

영혼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았다. 모든 것은 '이 생 this life' 안에서

--메시아: 기름 부은 자 - 대제사장, 왕, 예언자

--조로아스터교의 종말론 + 이스라엘 국가회복의 희망 → "사람 모습을 한 이"

*구세주가 필요하다

--악마 너 때문에! 신의 세계로부터 온 구세주가 필요 309

조로아스터교의 선과 악의 원리/종말론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세상의 구세주,
우주적 투사 모습 등장

--영지주의: 기독교의 기초를 놓는 포괄적인 종교적 세계관 확립

이 세상은 전혀 다른 종류의 구세주를 필요로 하다. 310

*세상의 구세주로서의 예수

--십자가형을 받은 한 갈릴리인이 온 이스라엘의 메시아 = 온 세상의 구세주

상반되는 개념: 유대인들 - 세상의 지배자 (ruler of the world)

그리스도교인들 - 세상의 구세주 (Savior of the world) 311

--"세상의 통치자" 악마가 다스리는 영적 시스템으로서의 "이 세상"은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. 인간은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.

--예수는 악마의 "세상" 밖으로부터 악마를 대적하고, 그의 집을 약탈하기 위해 구세주의 자격으로 왔다. 315

--"그 분이야말로 참으로 구세주(the Savior of the world)" (요한 4:42)

생각해 보기: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'예수는 구세주'라고 할 수 있는가?